

이낙연·정세균 호남 주도권 경쟁 본격화...세걸집 돌입

호남출신 민주당 대권주자

전당대회 끝나자 공식 대권행보

이, 8일 광주서 '신복지 포럼' 창립

각계 인사 2만2000여명 회원

정, '나의 소원 포럼' 공식 출범

광주·전남 2500여명 회원 참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세 확산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 잡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호남 출신으로 지지기반이 겹치는 만큼 호남 민심을 놓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두 후보가 국무총리와 대한민국 '정치1번지'인 서울 종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비슷한 경력을 지니고 있어 대선 경선에 앞서 호남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된 지난 한 달 여간 전국을 돌며 민심을 훑았던 비공식 행보를 끝내고, 지난 4일부터 첫 공식 대권 행보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지지세력 규합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총리를 사임한 정 전 총리도 영남과 호남을 오가면서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서는데 대권 행보에 들어가면서 팬클럽 등 다수의 지지세력들이 세 확산에 돌입했다.

두 호남 주자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개별 활동을 이어오던 지지 모임들이 잇따라 공식 출범식을 열면서 호남에서 본격적인 세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3시 광주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광주포럼' (약칭 신복지 광주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는다. '신복지 광주포

럼'은 이 전 대표의 복지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이날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이 전 대표 측이 채택한 국가비전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심화되는 사회 격차와 불안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로서 신복지제도의 철학을 쉽게 표현한 말이다. '신복지 광주포럼'은 정치권부터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를 비롯한 청년, 장애인, 여성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2만2000여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포럼은 앞으로 ▲국민 적정생활 보장을 위한 연구 및 활동 ▲신복지 실현을 위한 강연 및 세미나 ▲정책 개발 및 실천활동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최근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정 전 총리 측의 지지단체들도 새롭게 출범하면서 세 확산을 꾀하고 있다. 지난 4일 정 전 총리의 지원조직인 '나의 소원 포럼'이 공식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포럼에는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학계·언론·종교·예술계 인사 등 회원 2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나의 소원 포럼'은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촛불 민심의 개혁 완수, 경제회복과 포용사회 구현의 공동체 사회를 목표로 설립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의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책 연구를 통한 대선 정책 발굴과 함께 인문·경제·통일·안보 등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등을 열고 지역민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여당 대권 주자로 자리 잡으려면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호남 출신에 문재인 정부 총리라는 같은 이력을 가진 두 후보 중 누가 호남의 선택을 받아 이재명 지사의 경쟁자가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6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송영길 "살아있는 당 만들겠다"

권양숙 여사 당선 축하 인사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봉하마을을 찾았다. 송영길 대표와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방문,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큰 세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는 뜻

의 '대붕역풍비 생어수영(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이라는 글과 함께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겨 민주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적었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 시절 "함께 꿈을 꾸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라고 적은 박석 앞에서 무릎 꿇은 뒤 자신이 과거에 자주 쓰던 문구라고 회상했다.

당 지도부는 참배를 마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석했다. 권 여사는 "꽃이 예쁘게 피었을 때 지도부가 방명해줬다"며 신임 지도부에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송 대표는 "2008년 정세균 대표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김민석 차석 최고위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과 대통령 내외를 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송영길 대표가 대한민국 전통대로 삼세판에 당 대표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봉하마을 방문에는 윤관석 사무총장, 이윤민 대변인 등 신임 당직자와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호 의원도 동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치권 달구는 '2030' 구애 공약...輿論각 "퍼주기 안돼"

2030 세대를 겨냥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청년 지원 구상이 대선국면 초입에서 주요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2030의 위력을 절감한 이들 주자로서 지지층 복원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한 차원이지만,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일부에서도 포퓰리즘 논란을 우려하는 등 전선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다주택자가 낸 중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에는 의무복무를 마친 군 전역자에게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을 주고 제안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대학을 안 간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해 논란을 낳았다. 정 총리는 지난달 말 '사회 청년생을 위한 1억원 통장'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야권 인사들은 대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 모임에서 '여권 빅3'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이제 약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투어 잔돈 몇 푼으로 청년을 유혹하는데 열심"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빅3'의 청년 지원 구상이 선거용 퍼주기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는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있는 재정을 마구 나눠주고 퍼준다고 생각하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도를 개선하고 희망을 복원하기보다 돈을 얼마 주겠다는 방식으로 정책 노선이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송영길 대표 "아빠 심정으로 20대 아픔에 공감하겠다"

민주당 초선의원 간담회

"조국사태 제대로 사과 했나"

20대들 쓴소리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6일 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20대의 성난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국회에서 개최한 20대 청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병역 문제와 조국·윤미향 사태, 김어준씨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쏟아냈다.

참석자인 최수영씨는 "군필자가 복무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군가산점 제도가 쟁점 이슈에 소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국방유공자 예우법에 대한 "군가산점을 자

기 이름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신만 쌓이게 한다"며 "청년들이 공정을 원한다는 점을 민주당이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고 비판했다.

박인규 씨는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안 했다"라며 "송영길 대표도 아들에게 의견을 듣는데 인턴 비서라도 잡고 물어보시라. 허위 인턴, 표창장으로 대학에 간 사람이 있는지"라고 성토했다. 또 "일자리 만들겠다던 대통령은 어디 갔나"라며 "(취임 초 등장했던) 일자리 상황판은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여권의 적극적 방어에 대해서도 "출연료, 편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성역이냐"라고 반문했다.

이기웅 씨는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석한 민주당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윤미향, 조국 사태 등을 보며 20대가 엄청나게 실망했다. 만약 코로

나19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참석자인 최진실 씨는 젠더 갈등 문제와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보좌진까지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대표는 원격회의 시스템인 '줌'으로 인사말에 나서 "제 아들, 딸도 91년생, 96년생"이라며 "민주당이 아빠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아픔에 공감하고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 고영인 운영위원장은 "청년들이 일자리, 반칙 없는 세상 등을 기대하고 요구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못 했고,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